

은사와 열매 (2)

Gifts & Fruits (2)

에스겔 36:24-28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8월 5일 설교

²⁴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로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²⁵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²⁶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²⁷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라. ²⁸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윗의 기도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삼하 11장). 남의 아내인 밋세바와 동침해 간음의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숨기려고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크게 꾸짖히면서 지은 죄에 걸맞은 큰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지만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게 다윗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던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시 6:6), 침대가 눈물에 동동 뜰 정도로 많이 울었는데, 마음을 담은 그 회개를 하나님도 받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무렵 지은 회개의 시 가운데 유명한 게 시편 51편인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 51:11).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 하면서 주의 성신, 그러니까 신약 표현대로 하면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저를 구원에서 탈락시키지 마소서,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마소서, 하는 그런 간구처럼 보입니다.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말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 1:2).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 내내 우주와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사람들이 맡은 일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께서도 역사를 이끄시고 사람을 도우시지요. 그렇지만 일하시는 방식은 지금과 구약 시대가 많이 다릅니다.

구약시대 직분 가운데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아시지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제사장 출 28:41, 선지자 왕상 19:16; 왕 샷 9:8; 삼상 9:16; 15:1) 왕이 있기 전 모세나 여호수아 또 사사 같은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신 34:9; 사사 샷 3:10).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는 다윗의 기도도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 왕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를 왕으로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만은 계속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왕 자리에 연연했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음 왕 자리에 연연했지만 (삼상 15:24-31) 다윗은 제 왕 자리보다 하나님 나라의 안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성신을 거두지 말아 달라는 기도는 다윗의 구원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서 맡은 그 직분을 두고 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사역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예언, 곧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따르던 장로 칠십 명에게 여호와와 신이 임하시니 칠십 명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민 11:25).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도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여호와와 신이 임하셨을 때 예언도 했습니다 (삼상 10:10-13).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사람을 선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신을 주셔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출 31:3).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시면서 당신의 신을 주셨더니 삼손이 힘이 장사가 되어서는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사람 서른을 한 손에 때려 눕혔습니다 (삿 14:6, 19).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셨을 때 사울은 전에 없던 초인적인 힘이 생겨 소 두 마리를 맨손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삼상 11:6-7).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이긴 것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삼상 16:13; 17장).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특정한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임하셨기 때문에 왔다가 떠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신은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갔습니다 (삼상 16:13). 그 뒤에도 사울은 왕으로 있었지만 왕 노릇을 잘 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했고 백성들 마음도 사울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의 성신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다윗의 기도도 그런 사울의 경우를 염두에 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위해 오신 성령이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 성령은 사람의 인격과 무관하게 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능력은 생겼지만 성령이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 인격, 내 사람됨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락 왕에게 갔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만 하고 말았습니다 (민 24:2-9).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발락이 주는 금은보화를 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주도하시니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도 성령이 임하신 뒤에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 했고 창녀 집에도 들락거리고 아내 아닌 여자와 동거도 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이 임하신 뒤 참 겸손한 사람으로 나옵니다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이미 겸손한 사람이었고 아버지 말씀도 잘 따른 효자였습니다 (삼상 10:22; 9:21; 9:3-5). (삼상 10:6, 9의 “새 사람” 및 “새 마음”은 원문이 “다른 사람” 및 “다른 마음”이다. 겔 36:26이 약속하는 “새 마음”과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시대에 활동하시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이 구약 시대에 기쁨부음을 받았는데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기쁨부음을 받은 자,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와 신이 그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오래 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사 61:1). 그래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이 예수 위에 내려오셨고 (마 3:16; 막 1:10; 눅 3:22; 요 1:32-34)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마 4:1; 요 3:34).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신 분일 뿐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 1:33-34). 성령이 예수 위에 내려오심으로써 이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곧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 7:39).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을 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다음 하늘로 가셨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다시금 높아지신 다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높아지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금 오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이 전하는 새 언약의 약속, 참 구원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 성취

오늘 본문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순종하면 산다 하신 언약입니다. 순종하면 살지만 순종 못 하면요? 죽지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 가운데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가 다 됩니까? 아예 불가능입니다. 순종만 하면 사는데 순종을 못 하니 죽어야 됩니다. 가만 두면 온 인류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첫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에는 두 가지가 담겼습니다. 첫째, 옛 언약 때문에 생긴 죄를 씻어주고, 둘째, 옛 언약 때 할 수 없었던 순종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에 모아 맑은 물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 특히 우상 숭배의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지요? 주 예수의 십자가로 가능해진 은혜이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8). 하나님이 오래 전 에스겔을 통해 주신 약속 그대로지요? 먼저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신 다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순종을 거꾸 강조합니다. 우리 속에 주시니 마음에 주시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 주십니다.

돌 마음 몸 마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시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 새 영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새 마음입니까? 옛 마음부터 봅시다. 전에는 어땠기에 순종을 못 했습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난해 구약 통독 때 이미 살폈습니다. 굳은 마음은 원문이 “돌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원문이 “몸 마음”입니다. 옛 마음은 돌 마음입니다. 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단단하지요. 눌러도 안 들어가고 비틀거나 주무를 수도 없습니다. 돌은 주로 차갑습니다. 그리고 돌은 무생물, 곧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돌에 비겼으니 단단해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차갑게 죽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차고 단단한 마음이라 해도 될 걸 왜 굳이 돌이라 했겠습니까? 돌로 된 뭐가 있지요? 예, 십계명이 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 곧 이걸 지키면 산다 하시면서 십계명을 돌에 새겨 주셨습니다. 언약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 마음이 죄에 물들어 그걸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 결국 우리 마음이 돌이라 하신 거지요 (고후 3:3 참고).

이런 돌 마음을 없애고 몸 마음을 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 마음을 우리 육신 곧 몸에서 제하고 대신 몸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몸에 새 마음을 주시는데 몸 마음을 주십니다. 몸이니 살았고 살았으니 움직이고 움직이니 따뜻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건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몸 마음을 주시는 순간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대신 하나님을 향해 살았습니다.

이 새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됩니다. 전에 살았던 자아, 곧 돌 마음은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 곧 거듭난 삶이 시작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몸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해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열매 맺는 삶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돌 마음을 없애고 몸 마음을 대신 주시는 성령은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은 구약 시대 일하시던 성령과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첫째로, 믿는 모두에게 오십니다 (요 7:37-39; 4:14). 옛날에는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만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단 한 사람 예외도 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둘째로,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 14:16).

성령께서는 그럼 믿는 모두에게 오셔서 영원히 계시면서 뭘 하십니까? 순종하게 하시지요. 하나님 뜻을 알고 믿고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씻음 받은 뒤에 또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씻어주신 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난 죄를 씻음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목표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 곧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격의 중심인 마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모두에게 오셔서 영원히 계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우리 마음에, 우리 인격의 중심인 마음에 오셔서 내 인격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나라는 사람, 곧 성령으로 얻은 나의 새 생명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도 새 영이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내가 누굽니까? 자유인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 8:32). 주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후 3:17). 전에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 5:1).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자유 가운데 하십니다.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도 자유나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함께 일합니다. 성령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가 맡기기를 기다리시고 맡길 때 도우십니다. 도우시는데 나는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은사와 열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성경은 “열매”라 부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 21:43). 성령으로 맺는 열매니 성령의 열매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겁니까? 그런 것도 맞지요. 하지만 몇 개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건 다른 말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신약 시대인 지금 구약 시대에 하시던 일도 계속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을 맡은 사람에게 오셔서 그 일을 잘 이루게 능력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건 열매가 아니고 뭘니까? 은사지요. 옛날 선지자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맡은 일꾼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잘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던 성령께서 오늘도 장로, 집사 등 교회 직분자들에게 일을 잘 수행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오래 전 삼손에게 사울에게 초인간적인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인 지금 이런 은사를 구약 시대처럼 필요한 몇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그런 것도 같지요? 내가 못 받은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구약 시대처럼 지금도 은사는 우리 인격,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인격과 무관한 것 같지요? 지난 주일 살핀 주님 말씀만 봐도 엄청난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열매는 전혀 못 맺어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두 주 뒤에 다시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한 가지는 성령은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높아지신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그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돌 마음을 제거하시고 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한 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함께 어울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라고 은사도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사랑과 은사

다윗이 거두시지 말라고 간구한 성령은 구원과 무관한 성령이었습니다. 그저 왕 노릇 잘 하게 도우시는 성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구원과 무관한 성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지만 우리 시대에는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가 없을 수 없고, 은사 또한 한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은사를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 은사는 모두에게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인격과 무관하게 일하셨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유입니다. 내가 싫다 하는데 성령께서 억지로 맡기시지 않습니다. 맡아야 할 내가 맡지 않는데 성령께서 대신 맡으시지 않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2). 주님은 맡기고 기다리십니다. 또 은사는 열매 곧 신앙인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내 열매를 나타내는 방편이 되어야 하고 결국 무엇이든지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차갑던 돌덩어리가 없어지고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최종 목적이 뭐고 하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순종으로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 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또한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지금 은사와 열매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성령께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두에게, 열매도 맺게 도우시고 은사도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살아 말씀 순종

의 열매를 맺는 일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그 열매에 맞게 사용하는 일은 새 언약에 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권수경 목사)